



'79년부터 '83년까지의 5년간 소비증가율은 17.8%로서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농현황

연도별	낙농가 호수	젖소 사육두수	연간 우유생산량	남유량	연간 1인당 소비량
1962	676호	2,406두	2,647 톤	1,520톤	0.1kg
1965	1,210	6,612	10,685	8,751	0.3kg
1970	3,126	23,624	51,888	160,338	4.6kg
1975	9,415	85,542	162,926	160,338	4.6
1980	17,666	179,841	457,580	452,327	11.0
1983	29,537	274,783	716,384	712,206	18.2

가축의 사육두수는 '84년 12월 현재 33만 4천 두로서 1년 전보다 5만 9천두가 늘어나 21.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중 착유우는 19만 5천두로서 1년 전보다 3만 5천두가 늘어나 2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유가 단일식품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영양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마셔야 한다는 것이 국민전체에 보편화되어 있다면 20여만마리의 젖소가 짜내는 우유로서는 4천만 인구가 마시기에는 훨씬 미흡한 양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선진 제국 국민들은 마치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듯이 우유를 거의 주식으로 상용하고 있다. 이는 우유 중에는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균형있게 함유돼 있어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슘의 경우는 쌀보다 17배나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의 경우는 쌀보다 무려 100배 이상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이 바로 이 우유다. 또한 체내에서의 소화흡수율도 매우 높아서 단백질은 98%가 흡수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99%가 흡수되며, 칼슘의 경우도 야채칼슘의 소화흡수율이 10~20%인데 비해 우유칼슘은 53%나 흡수된다.

일천한 낙농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에게는 우유가 그저 좋은 식품이라는 데는 동감을 하면서도 실제로 별로 마시지 않고 있고 식탁에 등장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느낌이다. 수천년간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

매년 겨울철이면 우유를 잘 마시지 않는 소위 비수요기를 맞게 되어 각 유가공업체에서는 일반 시유로서의 생산보다는 분유를 위주로 생산해 왔으나 이번 겨울은 그 정도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현상이다. '84년도의 이월된 분유량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우유 체화현상의 요인은 우리 국민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낙농의 장래를 전망할 때 우유의 수요가 국민 경제력 향상에 맞추어 늘어날 것으로 전제한다면 젖소 사육두수와 사육농가는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전망은 밝다고 내다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 간의 낙농현황을 살펴보면 젖소 사육두수와 사육농가, 그리고 우유 소비량은 계속 양적인 증가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74년에서 '83년까지의 평균 우유 소비증가율은 21.7%로 나타나고 있으나 '74년부터 '78년까지 5년간의 평균 우유 소비증가율은 25.7%인데 비해

몸에 밴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경제가 급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일상 생활영역은 점차 문명화되고 서구화되면서도 생존의 기초적인 요건인 의식주, 그 중에서도 식생활에 있어 영양문제를 도외시하고서야 어찌 튼튼하고 건강한 체력을 소유한 국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우유가 국내에서 겨우 자급될 정도로 영세했던 '75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5kg 전후에 불과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20kg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발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구라파 선진제국에 비하면 $\frac{1}{20}$ 에서 $\frac{1}{10}$ 정도의 수준이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연간 1인당 소비량이 60kg을 넘고 있으니 우리는 겨우 일본의 $\frac{1}{3}$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왜놈으로 불릴만큼 체구가 왜소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후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젓소를 길러 우유를 짜먹기 시작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은 체위의 놀라운 향상과 함께 최장수의 나라, 경제대국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부러워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유가공업체들은 제작이 어떻게 해야 소비를 늘리고 침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다. 또한 심각성이 극도에 달하자 당국도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으로 앞장서서 우유 소비를 호소하고 우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낙농인들은 그렇게 다급한 표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생업에 관한 한 우리 낙농인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우유를 선전하고 건강에 필수적인 식품임을 강조하면서부터 소비향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TV나 라디오 혹은 신문, 잡지 등에서 우유의 광고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낙농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광고내용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거나 시선을 집중시켰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해 말부터 유가공업체들이 의견을 모아 실시하고 있는 공동광고는 어느 특정유업체의 제품선전이

아닌 데서 전체 낙농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우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잠재수요를 개발할 수 있다는 데에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81년도의 낙농 불황기에도 우유의 공동광고가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그 때에는 일시적인 불황타개책으로 그쳤고 이번의 공동광고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유업체 상호간의 과당경쟁에 의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과대선전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광고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의견이 분분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동기나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뒤늦게나마 우유가 완벽한 영양식품으로서 국민건강의 젖줄이라는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은 펍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거액의 비용을 투자하여 광고만 하게 되면 우유소비는 저절로 확대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물론 그동안 각 유업체의 경쟁적인 유제품 광고가 우유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무시 못할 사실이고 또 공동광고 역시 소비확대에 큰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매스컴의 기능과 역할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너도 나도 상품이다 하면 으레 미녀와 음악이 동원되고 눈이 어지럽도록 화려한 색채를 조화시키는 매스컴 광고가 난무하는데, 그런 요란한 광고 홍수 속에서 눈과 귀가 둔감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유독 우유나 유제품에 관한 광고 내용만은 그대로 신용하리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다.

보전신보사가 지난 해 말에 전국 5대도시의 가정주부 1,531명을 대상으로 우유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른 식품의 광고와 비교해서 우유광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물음에 다른 광고와 「비슷하다」고 답한 사람이 627명으로 41.0%를 차지했고, 「우유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은 질문에는 43.3%에 해당하는 648명의 주부가 광고선전이 과대선전이라고 지적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스컴을 통한 광고는 유업체가 담당한다면 매스컴 광고를 불신하거나 우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홍보는 우리 낙농인들이 담당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주위의 우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유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진지하게 설명하고 우유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할 때이다. 우유 마시기를 권하는 일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일이 아니다.

낙농학을 전공한 Y 교수의 우유 마시기 캠페인의 예는 낙농인이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사례인 것 같다.

대학에서 낙농을 전공하면서 우유의 우수성을 알고는 그가 대학시절에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기숙사 식당의 식단은 체력과 두뇌의 회전속도를 감안하여 늘 우유 중심으로 짰다고 한다. 그 결과 졸업생 60여명 중에서 16명 이상의 박사가 배출되었고 각 유업체의 이사나 공장장 등 현재 우리나라 낙농계의 주역들이 배출되었음을 증명한다. 더우기 낙농경영 연수시절에는 하루 1.8kg의 우유를 섭취함으로써 60두 젖소를 혼자서 거뜬히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 자녀들에게 식사 때마다 우유를 마시게 했더니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 때에 키가 175cm였고 중 1 때는 178cm나 되었다고 하니 과연 우유의 진가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유를 애용하는 그의 생활이 아니고 우유를 PR하는 방법이다.

Y 교수는 어떤 강연회이건 모임에서건 우유 마시기를 권하는 데 제자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볼 때마다 신부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다. 시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반드시 밥상에 우유를 드리도록 주례사 중에 당부한다. 물론 예식장은 웃음바다가 된다.

자신의 전공인 낙농학에 긍지를 갖고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우유를 PR 하는 Y 교수의 열성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우리의 생활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유를 많이 마시도록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다방을 찾을 경우 굳이 우유를 멀리 하고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수입해야 하는 커피를 마셔야 할 이유는 없다.

자녀들의 간식이나 군것질에 하필이면 영양이 가득한 우유는 찾지 않고 위생적으로나 영양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과자류를 사다가 버릇들이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습성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에서나 혹은 어떤 모임이나 행사라도 무관하다. 한참 오가던 대화가 끝나고 화제가 궁색해지면 우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제에 올려 보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유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3만 낙농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우유 마시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아마 놀라울 만치 쉽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유에 관해서 모르고 있다.

성남 연수원에서 사회단체 임직원반 새마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같은반 15명 정도의 분들은 각 단체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는데 우유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것을 발견했다. 그저 몸에 이로울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면 우유에 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다. 그랬더니 우유에 관해 잘 몰랐거나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그렇게 좋은 우유라면 앞으로는 꼭 마셔야겠다는 말을 하는걸 들을 수 있었다.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고 식생활습관이 개선된다면 그것도 국민 체위향상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아니겠는가!

무병장수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공해 건강식품에 대해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진가도 밝혀진 적도 없는 것들을 사기 위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돈을 마구 써대는 걸 볼 수 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효험도 없는 엉뚱한 약에 현혹되어 속지 말고 평소애 우유라도 규칙적으로 마셔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걸 느낀다.

미국의 경우 국민에게 우유마시는 양을 체력

이나 성장정도를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는데 10살 이하의 어린이는 하루에 3컵 이상을, 성장이 빠른 10대의 경우는 4컵 이상을, 성인은 2컵 이상, 그리고 젖을 빨리는 임산부의 경우는 3컵 이상의 양을 표준으로 정하여 마시도록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1컵이 240cc를 가리키는 양이므로 미국 10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180cc들이 우유를 하루에 5~6개 이상 마시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우유를 많이 마시는 미국인의 체력은 어떠한가.

체격에서 우선 기골이 장대하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거니와 각종 스포츠 경기를 보나 올림픽 메달수를 보나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정치적인 힘을 보나 그들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밀바탕엔 튼튼하고 건장한 체력이 선행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위암이 적고 우유를 적게 마시는 동양인에게 위암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우유를 하루에 3병 이상 마시면 위암이 예방된다는 말이 생기는 것을 보더라도 우유는 이제 식생활의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년전 부터 학교 아동들에게 우유를 급식시키고 있다. 국가의 재정 사정으로 일부의 아동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유를 마시는 어린이와 마시지 않는 어린이와의 체격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우유와 지능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능발달이 낮은 아동만으로 학업을 평성하여 시험한 결과 우유를 마시는 어린이에 비해서 마시지 않는 어린이의 낙제생 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늦지만 이제라도 윈스톤·처칠경이 강조했던 그 말을 명언으로 새길 때가 아닌가 싶

다.

「한 나라가 그 장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여두는 일이다」라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유가 훌륭한 식품인 줄은 알면서도 비위에 맞지 않아 소화가 잘 안되어 마시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마시는 요령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더우기 낙농인들 중에도 우유 마시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되고 설사를 하는 사람은 마시는 양을 처음에는 조금씩으로 하다가 점차로 늘리도록 하면 되고, 또는 우유에다 물을 희석하여 마시다가 차츰 그 희석도를 낮추어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계속 마시던 사람도 우유를 썬어 먹듯 조금씩 여러 모금에 마시면 소화가 잘된다.

찬 것을 그대로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고 입을 댄 우유는 쉬 상하므로 남기지 않고 바로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겨울같이 추운 날씨로 말미암아 몸이 차가울 때 특히 발이 몹시 얼었을 때에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되고 설사를 일으키는 수가 많으므로 몸이나 발을 녹인 다음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불과 수년 후면 선진국 대열에 설 것으로 꿈꾸고 있는 나라가 우유 소비량은 선진국의 몇 십분의 일에 해당하면서도 우유가 남아돈다는 것은 어찌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더욱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이라면 우유를 덜 마시는 국민이 아니라 유제품의 재고누적과 우유 체화 현상이 계속되어 타격을 받으면서도 소비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는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좌시하는 낙농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해당될 것이다.

이웃의 조사료자원, 내구비와 바꾸어 활용하자

자료질감표어